

<2012년 8월 8일 수요일 새벽 잠언>

*. 성자 계시의 잠언

1. 나 성자에 대해 인식하는 만큼 내가 역사한다.
2. 인식관이 온전해야 구시대에서 온전히 자유함을 얻고 독립하게 된다.
3. 성약역사에 대해 인식해야 독립한다.
4. 과거에 신약의 주를 사랑하고 믿듯이,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대 성자 분체를 믿어야 된다. 그래야 신앙의 독립을 한다.
5. 습관 된 대로 체질화된 대로 행하지 말아라.
6. 말로만 하고 진실로 행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
7. 영과 정신이 살아야 진실로 행한다.
8. 인류 최대의 희망은 '주의 재림'이다.
9. 성자 분체는 인류의 모든 자 앞에 먼저 '부활의 영'으로 나타난다.
10. 과거에 해 오던 대로 계속하니, 차원을 높이지 못하고 열정과 열심이 식어 간다.
11. 세상에서 타향살이를 하던 너희 영들을 본향인 하늘나라로 데려간다. 이것이 '영 휴거'다.
12. 지금 이때는 마치 마지막 문을 여는 순간과 같다. 끝까지 문 열듯 하면 된

다. 포기하지 말아라.

13. ‘변질’은 ‘생각’에서 시작된다.

14. 변질되면 회복하지 못한다.

15. 생각은 생각으로 다스려라.

16. 인생은 누구나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 조금 더 길게 살고, 조금 더 짧게 살고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차피 인생은 정해진 100년을 살기 때문이다. 시한부 인생에게 줄 특효약을 발견한 자가 있으니 나 성자가 이 시대에 보낸 자다. 그는 자신을 평생 희생하고 바쳐 가면서 나 성자가 개발한 ‘구원의 약’을 밝혀냈다. 이를 밝히기 위해 각종 시험을 다 해 보고, 각종 환난을 다 이기고, 이것을 너희에게 주고 있다. 이 구원의 약을 받아먹고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17. 인생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어차피 다 죽는다. 고로 자기 영을 구원하여라.

18. 육신을 건강하게 만들어라. 생명이 연장된다.

19. 영을 건강하게 가꾸어라. 생명이 연속되어 영원한 삶이 된다.

20. 신은 그 영체가 온전하다. 고로 육체 없이도 온전히 행한다.

21. 육신은 온전히 행할 수 없다. 고로 육신이 변화되어야 된다. 변화된 자는 묶이지 않기때, 나 성자는 그러한 사람과 같이 일을 할 수 있으니 그런 사람을 찾는다.

22. 영과 육을 온전히 만든 나의 분체를 따라서 너희 육도 영도 온전히 만들

어라.

23. 인생은 정해진 시간이 있다. 단지 길고 짧을 뿐이다.

24. 영체로 행하면 신의 행위를 하게 된다.

25. 나 성자와 일체 되어 너희 영을 나의 분체와 같이 만들어라.

26. 좋은 차를 가지고 있어도 운전 실력이 없으면 못 달린다. 좋은 차와 좋은 실력이다.

27. 너희 영이 신령한 영체가 되려면, 너희 육체를 가지고 영체를 온전히 만들어라.

28. ‘말’로 하다가 말로 못 하게 되면, ‘펜’으로 하면 된다.

29. 진리와 사랑으로 무장하고 성령을 받아 1차 육적 부활을 하고, 2차 영적 부활을 하여 영이 하늘로 휴거되게 된다.

30. 섭리인은 누구든지 성자 분체와 두 감람나무와 두 증인이다.

31. 성경의 14만 4천 무리는 신부의 영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들의 숫자를 상징적으로 의미한 것이다.

32. 온전한 영으로 휴거되는 영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 14만 4천 무리다.

33. 천사장이 나팔 불 때 나 성자 본체가 재림한 후에는 세상에 환난이 크다. 그러면서 섭리역사는 펴 나간다.

34. 환난 전에 추수된 영, 곧 휴거의 영이 되어야 한다.